

# 전북에듀페이, 학생 교육활동 지원 효과

### 7월 말 현재 서점·문구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 등에서 사용률 높아 지난 6월부터는 대학 원서접수까지 사용처 확대...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도 도움

전북에듀페이가 학생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전북에듀페이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서점, 문구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점에서의 사용률이 29.1%로 가장 높았고, 문구점(24.8%),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전북에듀페이 홍보 이미지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13.3%), 영화관(12.7%) 순이었다. 특히 6월부터 안경점, 교복점, 예체

능·진로(직업) 분야 학원, 스포츠활동 및 대학원서접수비 등 사용처를 확대해 학생 교육활동을 폭넓게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와 함께 전북에듀페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가맹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가맹점에 안내서 및 안내 Pop를 제작·배부하고,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에 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음악학과와 공연방송연기학과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무대예술 전문인력양성 취업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호응'

### 전주대 음악학과·공연방송연기학과,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

전주대학교 음악학과와 공연방송연기학과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무대예술 전문인력양성 취업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취업을 준비하는 전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장에서 실무자를 통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 2년째 운영되고 있다.

워크숍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속 무대예술 전문인력의 특강과 학생들의 무대 기술 실습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무대, 기계, 음향, 조명, 기획 등의 세부 과목들을 배웠다. 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탐방하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다울(음악학과 2년) 학생은 "졸업 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같은 공연장에서 무대 전문인력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학교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너무 좋았다"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감독님들의 수업을 듣고 난 후 실습하니 금방 이해가 되고 참 재밌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주용(음악학과, 유성목(공연방송연기학과) 교수는 "평소 학생들과 상담하면 졸업 후 진로로 연주자의 길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LINC 3.0 사업단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소아청소년기 당뇨병 자가 관리능력 배양

###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 당뇨병 학생 집중관리 캠프' 식이요법·생활습관 교육 개별상담 등 프로그램 병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전주 시그니처 호텔에서 '2024년 당뇨병 학생 집중관리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진행한 이 캠프는 소아청소년기의 당뇨병 자가 관리능력 배양으로 당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캠프에는 당뇨 학생 30여명이 참여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소통·공감하면서 자신감 증진은 물론, 일상생활 속 당뇨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캠프에는 전문의를 포함한 자원봉사자가 1박 2일 동안 함께하며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생활습관 교육, 개별상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특히 의료진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할당 모니터링 및 학생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당뇨 학생들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해쳐 나가길 바란다"면서 "당뇨에 대한 올바른 관리법을 통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AI·데이터 기반 SW 인재 양성 '맞손'

### 국립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단 한국지능정보원과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정동원)과 NIA한국지능정보원 지능데이터본부(본부장 신신애)는 지난 1일 한국지능정보원 지능데이터본부에서 산업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 정동원 단장, 김장원 부장, 이석훈 부장, 정현준 부장, 한국지능정보원 신신애 지능데이터본부장, 신선영 AI데이터활용팀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2023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에서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됐다.

메타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DNA를 갖춘 META형 AI·SW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SW교육시스템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

NI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내 AI 기술 및 산업 발전, 인재 양성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총 833종의 데이터를 구축해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과 NIA한국지능정보원 지능데이터본부는 지난 1일 한국지능정보원 지능데이터본부에서 산업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계 및 연구계, 기업 등에서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AI 허브(www.aihub.or.kr)를 통해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에서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인증과정 개발·운영, △소프트웨어·AI·데이터 분야 인재개발, △산업인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 △각종 공모전 및 경진대회 프로그램 운

영·평가·기술자문 지원, △지역사회 취·창업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교육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프로젝트 협력 등 대내·외 협업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는 지역 내 SW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컴퓨터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모집단으로 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5~16일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16일 교원의 마음치유 및 충전 전을 위한 '방학중 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들의 교육회복력을 높이고, 2학기 교육활동 준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월요일 세밀화그리기 △화요일 타로상담 △수요일 영화치료 △목요일 원예치료 △금요일 스포츠리듬트레이닝 등이 있다.

특히 참여 신청 시작 반나절 만에 모든 프로그램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해 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교원들이 자기효능감을 높여 교육활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제 도입

# 예산 절감 효과 '톡톡'

### 총 267건 1472억원 심사

### 절감된 금액은 36여억원

### 교육재정 건전·효율성 확보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기대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에 특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3월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4개월여 간 약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의 공사 117건, 용역 78건, 물품 72건의 기초금액 총 267건, 1,472억원을 심사한 결과다.

계약심사제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해 교육재

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4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계약심사 대상은 분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계약심사제를 통한 예방과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